"엄마 고마워요" "우리딸 힘 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일 광주시 남구 동아여고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 시작에 앞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학교 교문에서 수험생의 어머니가 고사장으로 향하는 자녀에게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려운 외국어 변별력 좌우

수능 출제 경향 분석 … 언어·수리 체감 난이도 낮아

수험생들이 매년 어렵게 여겨왔던 수리영역이 전년과 올 6, 9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영역별 출제경향을 알아본다.

◇언어=진학사 김은영 위원은 "언어영역은 작년 수능과 유사하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됐다"면서 "특히 문학의 경우 개념어(주술적 속성 등)를 직접 노출시켜 그 의미를 모르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비문학도 지문마다 까다로운 문제가 1문항식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문동호 광주고 진학실장은 "지난해와 올 6, 9월 모의평가와 난이도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고, 문학분야에서 교과서 등을 통해 많이 접한 지문이 출제된 만큼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소 낮을 수 있다"면서 "다만 추론이나 비판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들이 출제돼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언어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오는 소재를 활용했으며, 시사성 있는 소재도 많이 다뤄졌다. 또한 기존의 단순했던 내용 확인 문제를 도식화나 표를 이용해 출제한 점이 눈에 띄었다.

◇수리='가', '나'형 모두 작년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메가스터디 이석록 입시평가연구소장은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쉽게 출제됐다"면서 "특이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고난도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적어 체감 난이도가 낮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봉석 전남여고 진학실장도 "도형·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웠지만, 여러 개념을 통합해 묻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을 적용하는 단순화한 문제가 많아 작년보다 쉬운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나'형은 기본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쉬운 문제와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주축으로 시험을 구성했고, '가'형은 자연계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차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 등이 출제됐다.

◇외국어=대부분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메가스터디는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예고된 대로 고난도 유형인 빈칸 문제가 한 문제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지문 길이가 길어져 학생들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현 석산고 진학실장은 "어휘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면서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한 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이 시간 부족 등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듣기 문항은 일상생활, 건강, 취미, 대인관계 등을 소재로 구성됐으며, 읽기에서는 문학, 예술, 과학, 취미, 실용문 등을 소재로 지칭어가 가리키는 내용 맞히기, 어법에 맞는 표현 찾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구·절 문장 추론하기, 지문에 근거한 사실 찾아내기 등이 출제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해 수준… 모의고사보다 쉽게 냈다"

정병헌 수능 출제위원장, 변별력 위해 선택과목 난이도 조정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정병헌〈사진〉 숙명여대 교수는 12일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시험의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영역에서 조정했고 EBS 수능방송과의 연계 정도 역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난이도 수준은.

▲전반적 난이도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같이 제공되므로 선택과목 간 난이도를 조정하고 등급이 안정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을 적절히 안배해 변별력을 갖추도록 했다.

-난이도가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 때와는 어떻게 다른지.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이 문제였다. 언어, 외국어는 지난 6, 9월 모의평가 수준과 비슷하거나 쉽도록 고려했다. 수리는 보다 쉽게 출제되도록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

-4교시 시험 일부 문제에 오류가 있어 재배송했다는 데.

▲오류는 아니다. 문제가 미리 완성된 상황에서 오타가 발생했다. 그냥 보내도 지장 없지만 수험생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정정지를 보냈다. 지문에서 6번 정도 반복돼 나오는 용어인데 마지막 한 글자에 오타가 생겼다. 정정지에는 잘못된 부분과 바로잡은 것을 제시했다.

-EBS 연계 출제 방향은 지난해와 구체적으로 달라진 게 있는지.

▲각 출제위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할 때 EBS를 반영토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출문제 시비에서 벗어나려 똑같은 지문이 나오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EBS에 연계됐는지 체감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영역별 난이도가 구체적으로 어떤가. 까다로운 문항을 어떻게 안배했나.

▲탐구와 제2외국어는 과목간 형평성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언어, 수리, 외국어는 난이도에 초점을 맞췄다. 까다로운 문제, 중간 수준 문제, 평이한 문제를 골고루 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다만 쉽게 출제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이어서 수험생이 어떻게 느낄지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올해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몇 개 씩 나왔나.

▲전부 새로운 유형의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새로움, 특이함 등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평이하게 접근하고 풀 수 있도록 노력했다.

-언어에서 EBS를 참고했다고 했는데 교과서 지문은 얼마나 활용했나.

▲동일한 지문은 문학 외에는 없다. 이미 지문을 읽은 경우 풀이에 상당한 이점을 갖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헷갈리는 표준점수·백분위·등급

대학마다 활용기준 달라

유·불리 따져 전략 짜야

올해 수능성적표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시돼 나온다. 대학마다 수능성적을 활용하는 기준이 달라 수험생은 자신이 받은 세 가지 점수의 유·불리를 따져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주로 상위권 대학은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중위권 대학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표준점수=영역별 응시생 집단의 특성과 과목별 특성의 차이로 발생하는 난이도 차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본 학생과 비교적 쉬운 과목을 본 학생이 받는 점수의 차이를 난이도를 고려해 보정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편차 단위로 표시한다.

표준점수 산출공식은 원점수에서 평균점수를 뺀 뒤 표준편차로 나누고 여기에 20(탐구영역은 10)을 곱한 결과에 100(탐구영역은 50)을 더해 구할 수 있다.

◇백분위=특정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의 백분율(0~100)을 의미한다. 백분위가 높을수록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백분위 점수는 계산하기 쉽고 여러 종류의 원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서로 비교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점수를 지나치게 단순화해 동점자가 많아져 수험생 점수 차를 구분하는 변별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등급=수능 성적표에는 영역별 선택과목별 등급이 1~9등급으로 표시된다. 1등급은 표준점수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 3등급은 상위 23%까지며 9등급은 하위 4%가 해당한다.

그러나 동점자는 모두 상위 등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1등급은 4%를 넘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원점수 만점자가 1, 2등급을 합한 누적비율인 11%를 넘으면 모두 1등급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2등급이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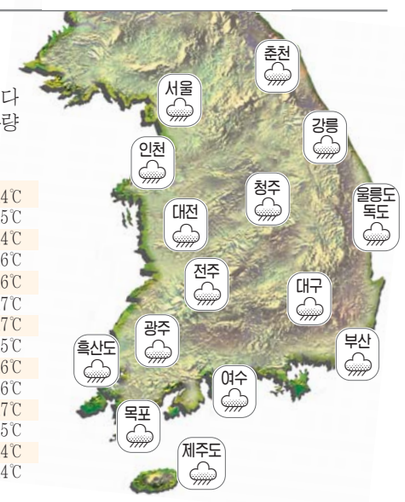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05분 해짐 17시 28분 달뜸 03시 12분 달짐 15시 00분

간지러운 가을비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리다가 밤에 개겠다. 예상강우량 5~10㎜

광 주	흐리고 비	11/14℃
목 포	흐리고 비	11/15℃
여 수	흐리고 비	12/14℃
완 도	흐리고 비	13/16℃
구 례	흐리고 비	8/16℃
해 남	흐리고 비	11/17℃
장 흥	흐리고 비	11/17℃
고 흥	흐리고 비	12/15℃
순 천	흐리고 비	10/16℃
영 광	흐리고 비	10/16℃
진 도	흐리고 비	13/17℃
전 주	흐리고 비	9/15℃
남 원	흐리고 비	8/14℃
흑산도	흐리고 비	12/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2.5m
먼바다	동~남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먼바다	동~남동	2.0~3.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3.0m
먼바다	북서~북동	2.0~3.0m

	밀물	썰물
목포	11:25 23:40	04:17 16:47
여수	06:30 18:37	00:04 12:2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날 씨						
최저/최고	7/14	4/11	3/10	3/9	1/10	2/12